■ 19~28일 '2012 아시아 문화주간'

흥미진진 아시아문화 광주에 꽃피었네

문화체육관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주최로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아시아문화마루 등에서 열리는 '2012 아시아문화주간'은 심포지움, 워크숍, 각종 회의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돼 있다.

그중에서 공연·전시 프로그램은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행사다. 특히 이번에 소개되는 작품은 오는 2014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예술극장 주요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으로 있어 눈길을 끈다.

▲무사 마마이

19일 오후 4시·8시 두차례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공연되는 '무사 마마이'는 아시아의 고전 신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추진단 산하 아시아문화정보원이 오랜 기간 거쳐 수집한 '무사 마마이', '제즈테르나크', '페리' 등 중앙아시아 3개 신화를 바탕 삼아 아시아예술극장이 제작한 인형극으로 '사람과 인형이 노는 판타지아'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의 카작인 정착지를 다스리고 있는 무사 마마이를 만나기 위해 한국 민간 외교 사절단이 아시아 횡단 열차를 타고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환상적으로 그리고 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원작인 '날 보러와요'의 김광림 작가가 대본을 썼고 최근 열렸던 여수엑스포 해상쇼 총감독을 맡았던 윤정섭씨가 연출자로 합류했다. 문재희·문창혁씨 등이 제작한 인형 등도 볼거리다. 문의 02-320-8815

▲하나 되는 아시아

아시아의 전통음악과 전통 무용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다. 21일~22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 시민문화관.

추진단은 지난 2010년 각국의 전통악기들로 구성된 '한·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를 구성, 공연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오케스트라 규모가 크다 보니 기동성이 떨어져 최근 한국 해금과 소금, 브루나이의 굴링탕간, 캄보디아의 트롤 소 토치 등 11개국 전통 악기 17종으로 구성된 '아시아전통실내악단'을 새롭게 출범시키고 이번에 첫 공연을 진행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빛고을 아리랑', 'One Asia'다. 또 이날 무대에서는 도 브루나이, 부탄, 태국, 베트남 등 14개국의 전통춤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2-320-8815

▲페이퍼 로드, 지적 상상의 길을 찾아서

20일부터 26일(오전10시~오후 5시)까지 아시아문화마루에서 열리는 전시회의 주제는 '포스터의 숲을 만나다'다. 디지털 시대 '종이'라는 아날로그적 매체를 통해 끊어졌던 동아시아 문명의 길을 이어보자는 의미로 기획됐다. 서기흔, 뤼징런 등 한국과 중국·일본·대만의 대표 그래픽 디자이너 33명의 작품, 100여점을 만날 수 있다.

20일 오전 11시 열리는 개막식은 박유복(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큐레이터)씨가 기획했다. 다섯가지 색깔의 물감을 뿌리고 자전거 타이어에 그 색깔이 묻게 하는 퍼포먼스, 매화를 주제로 빛과 그림자를 활용한 퍼포먼스, 영상, 음악, 바라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문의 062-232-150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중앙亞 신화 소재 인형극·전통 음악 등 무료공연

'포스터의 숲을 만나다' 33명 작가 100여점 전시

장터와 함께하는 '마을영화제'

광주여성영화제 주최 내일 화정동 주민센터

광주여성영화제는 18일 서구 화정4동 주민센터 3층 작은 도서관에서 '마을영화제'를 연다.

이번 영화제는 화정동 마을기업인 '화사한 꿈틀이'와 함께 '퐁당퐁당 마을영화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오전 11시에는 반려 동물과의 교감을 따뜻하게 그려낸 옴니버스 영화로 임순례 감독 등이 메가폰을 잡고 김지호 등이 출연한 '미안해, 고마워'가, 오후 2시에는 꼴통 중딩들의 개과천선 프로젝트 '천국의 아이들'(박흥식 감독)이 상영된다.

오후 4시부터는 '화사한 꿈틀이'가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개최하는 친환경 재활용 장터 '꿈틀거리는 화정장터'를 진행한다.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한 광주여성영화제는 여성영화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 여성 친화적 공동체 조성을 위해 마을단위로 찾아가는 상영회를 진행중이다. 3회 광주여성영화제는 오는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개최된다. 010-3114-4163

'미안해 고마워'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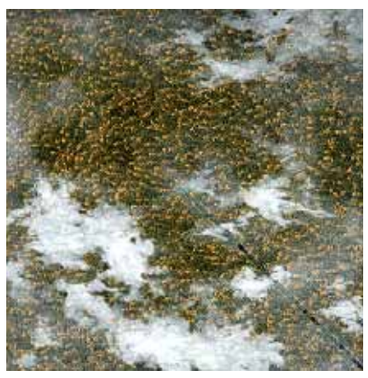
캔버스 수놓은 '자음과 모음'

이승일전 29일까지 갤러리 D

언뜻 멀리서 보면 캔버스를 핑크색 유채물감으로 채운 줄 알았다. 한 발짝 다가서면 작은 문자들이 수없이 반복돼 캔버스를 덮고 있다.

이승일씨가 29일까지 갤러리 D에서 '누군가에서 무엇이 되어'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문자를 화두로 내면 감정과 문자의 결합을 표현한 작품 10여점이 선을 보인다. 캔버스 위에 붓을 펜으로 삼아 글씨를 쓰는 작가의 작품 형태를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숨은 그림 찾기 식으로 캔버스에 바짝 다가가 사랑·감사·행복 등 수없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문자들의 이미지를 통해 작가 의도도 엿볼 수 있다. 검정색 바탕에 형형색색으로 조각난 자음과 모음들을 맞춰나가면서 사색하다 보면 작가가 숨겨놓은 암호를 해독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누군가에서 무엇이 되어'

이씨는 조선대 판화미디어과를 거쳐 '방콕-아시아 영 아티스트 페스티벌'을 비롯 그룹전에 참가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62-222-8011.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새단장' 아시아 문화마루로 오세요

내일부터 '夜 벼룩시장'·'페이퍼 로드…' 등 풍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관인 아시아문화마루가 재단장을 마치고 17일 재오픈했다.

아시아문화마루는 홍보관 자료 확충 및 주변 정비 사업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40여일간 휴관했었다. 이번 리노베이션 작업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한 영상 홍보 콘텐츠를 늘렸으며 건물 외관도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했다.

재단장 후 첫 행사는 18일 열리는 '아시아문화마루 夜 벼룩시장'(오후5시~9시)으로 아시아문화주간 행사 일환으로 19일부터 열리는 '페이퍼 로드-지적 상상의 길' 전시에 맞춰 북마켓도 함께 진행된다.

문화예술콘텐츠 전문강좌도 다시 아시아문화마루에서 행사를 이어간다. 오는 23일 오후 7시에는 성기완(3호선 버터플라이)씨가 기획한 '서브컬쳐 블록파티'가 열리며 25일에는 '안은미 컴퍼니와 함께하는 누구나 힐링댄쓰'를 개최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장미빛 인생' 김홍준 교수 21일 광주 특강

영화 '장미빛 인생' 등을 만든 김홍준(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광주에서 특별 강연을 갖는다.

김교수는 오는 21일 오후 3시 광주시청 자미디어센터에서 '지역영상문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김교수는 영화 '서편제' 제작 과정을 중심으로 지역의 영상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번 강의는 광주국제영화제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2012 지역특성화 문화예술지원 사업-어르신이 카메라를 만나 일곱빛깔의 무지개를 그리다'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된다.

/김미은기자 mekim@